

제 3 장 엘리사의 첫 사역: 생명과 죽음 (왕하 2:19~25)

I. 저주의 도시 여리고에 생명의 복을 가져오는 엘리사 (19~22)

1. 여리고의 쓴 물

1)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한 후, 이 성을 저주.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였음(수 6:26)
But 아합 시대 히엘에 의해 성이 재건되어, 저주받는 성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됨

2) 여리고의 문제(19):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므로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

3)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부탁

2. 여리고의 단 물 (출 15:22~26; 요2:1~11)

1) 오염된 물을 치료하기 위한 엘리사의 행동(20,21a)

a. 새 그릇: 깨끗한 용기(십자가의 보혈로 정결)

b. 소금: 정결 의식에 자주 사용(주님의 복음)

c.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짐(21a): 부패의 근원, 즉 마음이 해결되어야 함

2)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함(21b)

"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"

3) 저주의 도시가 고침을 받음(22)

II. 조롱의 도시 벤엘에 죽음을 가져오는 엘리사 (23~25)

1. 조롱의 도시 벤엘

1) 벤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(왕상 12:28,29)

2) 아합 왕때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조롱(왕상 16:34)

2.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(23): 대머리여 올라가라

선지자에 대한 조롱.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가지고 엘리사를 조롱. 하나님에 대한 조롱

3. 조롱의 도시가 심판을 받음(24): 엘리사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주.

암곰 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음